



“성인남성 2명 중 1명 비만..대중 인식 바꿔야”

대한비만학회 국제학술대회(ICOMES) 9월 1일~4일 개최



▲대한비만학회 유순집 이사장.

전세계적으로 비만으로 인해 연간 발생하는 직접적인 사회·경제적 부담이 기후변화 부담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국 성인남성 2명 중 1명, 성인여성 4명 중 1명이 비만으로 조사됐다. ‘제45차 대한비만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제2회 비만 및 대사증후군 국제학술대회 ICOMES(International Congress on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가 지난 9월 1일~4일 여의도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열렸다.

유순집 대한비만학회 이사장(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은 “이번 제2회 국제학술대회 ‘ICOMES’는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연구자들의 참여로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앞으로도 비만학회는 보다 풍성하고

다채로운 학술의 장으로서 ICOMES를 발전시켜 대사증후군에 대한 가장 최신의 정보가 교류되는 세계적인 학술대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수 대한비만학회 회장은 “WHO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체질량지수가 30이상인 비만은 위암, 간암, 난소암, 췌장암 등 여러 암을 발생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사회는 여전히 비만을 한 개인이 극복해야할 과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밝혔다.

그는 “비만학회는 대중의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 비만질환 퇴치를 위해 사회적 합의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면서 “7년째 이어져온 비만 캠페인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비만교육자 과정이 어떻게 기여할지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비만학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6~2015년 20세 이상의 성인비만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비만율은 지난 10년간 28.7%에서 32.4%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성인남성의 40.7%, 성인여성의 24.5%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혈관 및 대사질환의 합병증 위험이 높은 복부비만을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2030세대 젊은 남성에서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2015년 기준 한국 성인의 고도비만율은 4.8%로, 2009년 3.3%에 비해 약 45% 증가했다. 남성의 고도비만율은 5.6%에 이르러 급증하는 고도비만 환자의 치료와 관리 역시 국내 비만문제의 주요한 해결과제로 파악됐다.

이원영 대한비만학회 무임소이사는 “이번 연구결과는 학회가 지난해 11월 건보공단과 체결한 연구협력의 부분 결과”라며 “추가 결과는 오는 10월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제학술대회 ICOMES 참가를 위해 방한한 이스마엘 누어 아시아-오세아니아 비만학회(AOASO) 회장은 “비만은 전세계적으로 흡연,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무장 폭력에 이어 세 번째로



▲대한비만학회 이원영 무임소이사.

큰 사회적 부담을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누어 회장은 “비만으로 인해 한 해 동안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사회적 부담은 약 2조 달러로, 전세계 GDP의 2.8%에 이른다”면서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부담인 1조 달러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비만학회가 주최하는 ICOMES는 올해 2회째로, 지난해에 이어 전세계 비만 관련 기초연구 과학자 및 임상전문의를 비롯한 운동과 영양분야 전문가 약 900명이 참석했으며, 총 2회의 기초강의와 2회의 특별강의, 18회에 이르는 심포지움 등이 포함돼 비만과 대사증후군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부터 관리와 예방분야까지 폭넓게 다뤄졌다.

제1회 비만교육자 과정도 진행됐다. 이 과정은 대한비만학회가 제공하는 비만의 역학 및 기초적인 지식과 함께, 약물치료, 수술, 행동치료, 영양 및 운동 등 비만 관리를 위한 전방위적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비만교육자 자격을 부여하는 인증제도이다.

조정희 기자/MP저널